

2009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그대들은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이며, 더 커짐도 작아짐도 없이 청동처럼 단단한 고정된 크기의 힘이다. 이 힘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다. 전체로서는 그 크기가 불변하며, 지출도 손실도 없고 증가도 수입도 없는 가계(家計) 운영이며, 자신의 경계인 '무(無)'에 둘러싸여 있고, 흐릿해지거나 허비되어 없어지거나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으로서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공간 어디에도 '빈' 곳은 없다. 이 세계는 도처에 가득 차 있는 힘이고 동시에 힘들과 그 파동이 엮어내는 놀이이며, 하나이자 동시에 '여럿'이다. 여기서는 쌓이고 저기서는 줄어들며, 스스로 휘몰아쳐 오고 스스로 휘몰아쳐 나가는 힘들의 바다이며,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되돌아오며, 장구한 회귀(回歸)의 세월 속에서 밀물과 썰물처럼 여러 형태를 취한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것으로 움직여 나아가고, 가장 고요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것을 넘어 가장 뜨겁게 이글거리고 가장 사나우며 자기 자신에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것이 되었다가, 그 다음엔 충만함으로부터 단순함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모순의 놀이로부터 다시 조화의 기쁨으로 되돌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궤도 위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영원히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만도 권태도 피로도 알지 못하는 변화로서의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세계. 이러한 나의 디오니소스적 세계는 영원한 자기창조와 영원한 자기파괴의 세계이자 이중적 관능의 비밀스러운 세계이고 선과 악 저편의 세계이며, 순환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 목적도 갖지 않으며 원환(圓環)의 고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선한 의지 이외에는 어떤 의지도 없는 세계이다. 그대들은 이 세계의 이름을 알고 싶은가? 그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얻고 싶은가? 그대들,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자들, 가장 강하고 결코 놀라지 않는 자들, 한밤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 자신을 위해서도 한 줄기 빛을 원하는가?

제시문 (나)

자본주의는 본질상 경제 변화의 한 형태이거나 방법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진화적 특성은 단순히 경제적 삶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경제행위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며, 산업 변화는 종종 이러한 변화들(전쟁, 혁명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변화들이 산업 변화의 일차적 동인(動因)은 아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진화적 특성은 인구와 자본의 자동적 증가나 금융시스템의 예측치 못한 변동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을 작동시키고 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또는 수송 수단,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 기업이 창조해 낸 새로운 산업 조직의 구성 등으로부터 온다. [.....중략.....]

17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입은 단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일찍이 윤작(輪作), 쟁기질, 거름주기과 같은 합리적 농법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곡물 창고, 철도 등과 연계된 오늘날의 기계화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체계의 역사는 잇단 혁명의 역사였다. 대장간 화덕에서 오늘날의 용광로에 이르는 철강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물레방아에서 현대적인 발전소에 이르는 전력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역마차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수송의 역사도 그러하다. 해외 또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철공소에서 U.S. Steel*로의 발전은 — 생물학의 용어를 쓴다면 — 모두 산업적 돌연변이의 과정이며, 이것은 쉘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며,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가 주목해야 할 자본주의의 요체이다.

* U.S. Steel: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회사

제시문 (다)

역사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일련의 위계적인 신분들 사이에 맺어진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에는 가부장, 기사, 평민,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영주, 가신(家臣), 장인, 견습공, 농노 등이 있었으며, 각 계급 내부에도 거의 예외없이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이러한 봉건사회의 붕괴를 통해서 출현한 근대 부르주아 사회 역시 계급 대립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계급, 새로운 억압 조건, 그리고 새로운 투쟁 형태를 선보였을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 단계에는 각각 그에 조응하는 정치적 발전이 수반되었다. 원래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영주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을 받던 신분에서 출발하여, 중세 꼬핀과 같은 자위능력을 갖춘 자치공동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독립적인 도시공화국, (프랑스에서처럼) 군주의 과세대상인 '제3계급'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가내수공업 시기에는 반(半)봉건적 또는 절대주의적 군주제에서 귀족에 대한 대항 세력이자 군주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근대 산업 및 세계시장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부르주아 계급은 근대 대의제 국가를 통해 배타적인 지배권을 쟁취했다. 근대 국가의 행정부란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다름 아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신의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인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상전(上典)에 묶어놓았던 봉건적 속박을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벌거벗은 이해관계 내지는 '금전적 수수관계'

만 남겨 놓았다. 종교적 열정과 고귀한 열망과 문화적 감수성을 자기중심적인 차가운 이해타산으로 바꿔놓았다. 인간적인 가치를 교환가치로, 또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자유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비인간적인 자유로 대체했다. 한마디로 종교적, 정치적 베일에 가려있던 착취를 적나라하고 몰염치하며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착취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중략.....]

관념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의 변화에 발맞춰 변해왔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각 시기의 지배적 관념은 항상 지배계급의 관념이었다. 관념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은, 구(舊)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낡은 관념의 해체가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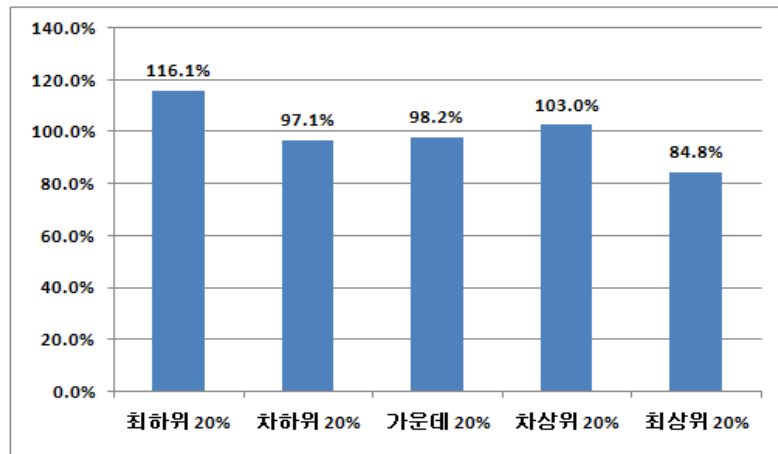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본질적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고, 자본의 조건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산업의 발전은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리상태를 결사(結社)를 통한 혁명적 단결로 바꿔놓는다. 따라서 근대 산업의 발달은 부르주아 계급의 생산과 착취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킨다. 결국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 활동을 통해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는 모두 불가피하다. [.....중략.....]

정치권력이란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에 불과하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되고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조건들을 폭력적으로 지양(止揚)한다면, 이는 곧 계급 대립의 조건들 및 계급 일반, 더 나아가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의 지위까지 지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계급갈등으로 점철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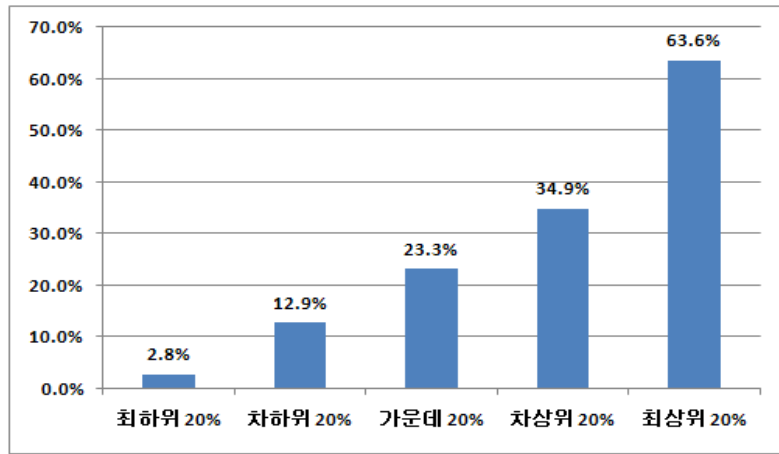
제시문 (라)

아래의 그림들은 미국의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그리고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과 시간당 실질임금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1947~1973년)



〈그림 2〉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1974~2004년)



* 세로축: 1947년을 기준으로 한 1947년과 1973년 사이의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임.

☞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 $(1973\text{년 실질 가계소득} - 1947\text{년 실질 가계소득}) \div 1947\text{년 실질 가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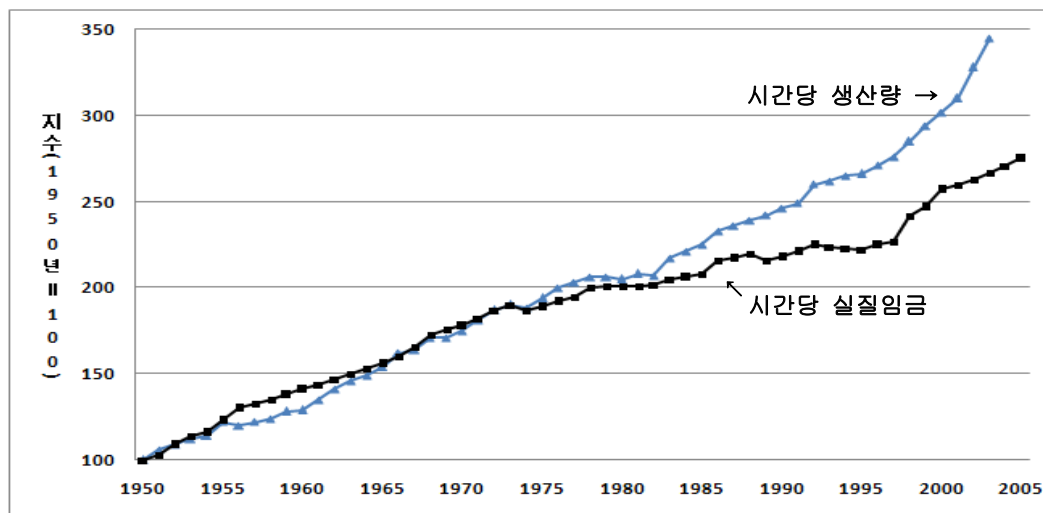
* 가로축: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20%씩 구분한 것임.

* 세로축: 1974년을 기준으로 한 1974년과 2004년 사이의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임.

☞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 $(2004\text{년 실질 가계소득} - 1974\text{년 실질 가계소득}) \div 1974\text{년 실질 가계소득}$

* 가로축: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20%씩 구분한 것임.

〈그림 3〉 시간당 생산량과 시간당 실질임금(1950~2005년)



[문제 1]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800자 내외, 30점)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 가운데 역사 해석의 관점으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입장에서 다른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하시오. (800자 내외, 30점)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그림을 해석하시오. (1,000자 내외, 40점)